



Malacanang宮으로 Marcos 大統領을 禮訪한 朱源代表, Marcos 大統領 바로 뒤에 서 있는 서울시 郭厚燮 都市計劃局長, 그 右側으로 五人제와 6人제가 崔鍾聲 造景公社 社長과 筆者

〈紀行文〉

EAROPH 第5次 마니라總회에 다녀와서

金 炯 萬

EAROPH은 '62年の 歴史를 가지고, 和蘭에 本部를 둔 IFHP (住宅, 都市 및 地域計劃 國際聯合;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ousing & Planning)의 地域機構(註1)로서 亞細亞地域 住宅 및 計劃機構 即 Eastern Regional Organization for Planning & Housing의 略号이다.

〔註〕 다른 地域機構로서는 汎美計劃協會 (SIAP; Inter-American Planning Society)가 있다. 事務局; Puerdrico의 Sunjuon所在。

亞細亞의 建築家와 都市計劃家들의 使命과 業務를 地域의 特性에 맞게 活潑히 推進하기 위한 情報交換 및 相互 協力の 目的으로 1958年 8월에 IFHP의 한 支部로서 正式 發足한 以來, EAROPH은 亞細亞에 있어서의 住宅 問題와 都市計劃에 關한 重要問題를 共同으로 研究·情報交流을 通해서 整理하고 解決하는데 努力해 왔다. 實際로는 IFHP 本부와 密接한 協力下에 UN, ECAFE, UNESO, WHO, UIA (國際建築家協會) IULA (國際自治團體聯合會) 등과도 連絡을 가지고 있으며, 그 本部를 印度의 뉴데리에 두고 있으며, 會員國은 大略 東經 60°에서 同 180° 사이에 있는 亞細亞 諸國家로 構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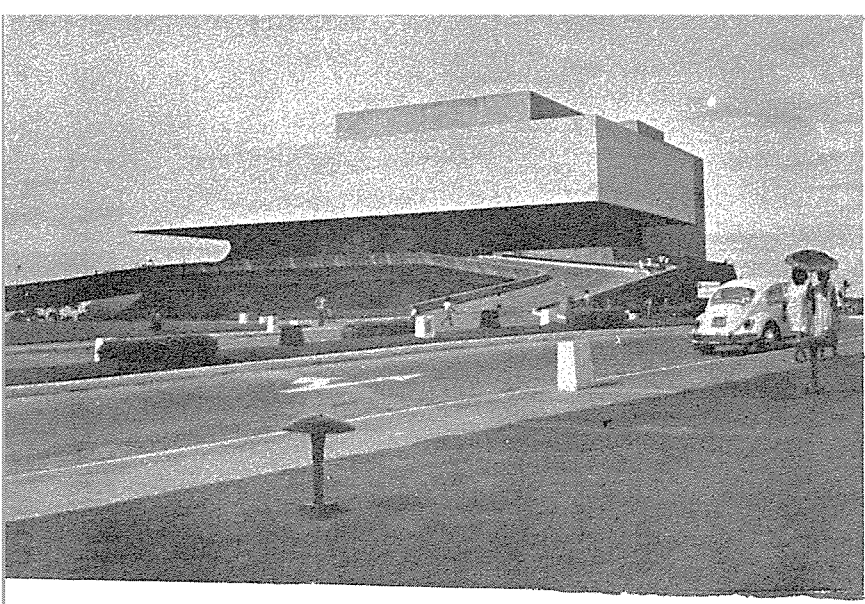
EAROPH은 1970年 5월에 濠洲 퀴베라의 第3次 總會, 그리고 1972年 9월에 韓國의 서울에서 第4次 總會를 가진 後, 今般 第5次 總會를 마니라市에서 開催하게 되었다. 實은 總會는 每 2年마다 가지기로 되어 있는데, 1974年度의 필리핀의 國內政治事情으로 今年 3月로 延期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1970年 이후 EAROPH의 理事인 本人은 前述한 各 總會와 또 每年있는 理事會에 參

筆者; 國民大學 教授·(工博)

加해 왔었다. 먼 異國에서 같은 分野에 일하는 同僚들과 每年 짧은 기간이지만 만나서 友情을 새롭게 하고, 經驗을 이야기하고, 조그마한 것이지만 各國特産品 선물을 交換하고, 또다시 다음 해의 再會를 約束하고 헤어지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었다.

印度人の 事務局長 C. S. Chandrasekhare 氏, 日本의 東京大學 教授이며 現在 國際聯合 中部地域 開發 Center 所長인 本城政彦 教授, Parkistan의 國土開發庁長을 지냈고 現在 美國의 Pennsylvania 大學의 客員 教授로 있는 Khalid Shibli 博士, 말레이지아의 自治省長官인 Dato Ong Kee Hui 長官, 泰國의 國立 Chulalongkorn 大學의 建築科 教授인 Harvard出身의 An Nimmanahaeminda 教授, Indonesia의 Bandung에 있는 國立地域 및 住宅研究所長 A. Kartahardja 博士, 그리고 Philippines의 建築家協會 會長이었던 Cesar Concio 學長들은 거이 每年 만나는 常連이었다. 우리 韓國에서는 朱源代表께서 EAROPH 初創期부터 모든 會議 및 Seminar에 參加하셨고, 特히 1972년부터 이번 總會 때까지는 EAROPH 會長으로 選出되셔서, 그 貢獻한 바 아주 크셨다. EAROPH 會議의 常連의 一人이요, 1972年 9月の 서울大會에 왔던 印度의 Manickam 教授가 別世하여 今般 마니라總會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것은 매우 섭섭한 일이었다.

이번의 第5次 EAROPH 總會는 3月 16日부터 22日까지 一週日에 걸쳐서 마니라의 Makati市의 Inter continental Hotel에서 開催되었다. 亞細亞 各國에서 百餘名의 代表가 參加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朱源代表를 비롯



마니라의 Culture Center의 主建物：彫刻的 造形美를 가진 現代的 建築으로서 大音樂堂과 民族博物館으로서 内部構成이 되었다. (攝影：金漢根氏)

하여, 韓國 綜合造景會社 崔鍾聲社長, 서울特別市의 郭厚燮 都市計劃局長 그리고 筆者와 現地大使館에서 李 基重 建設官이 參加하였다. 建設部의 金儀遠 國土計劃局長, 朴 昌權 土地利用管理官, 李承盧 都市計劃課長 등이 參加하실 豫定이었다가 마지막 出發 瞬間에 와서 政府事情으로 參席치 못한 것은 아주 섭섭한 일이었다.

今般 總會에 있어서 討議主題는 「國家發展을 爲한 環境 計劃問題(Planning Human Settlement and the Environment for National Development)」였고, 이와 관련 各國에서 一篇 씩의 論文을 發表하게 되었다. 韓國은 “開發計劃에 있어서의 效率性과 平等性의 問題(Efficiency or Equity ; Issues in Development Planning)”이라는 題目으로 發表하게 要求되었으며, 이 論文은 筆者가 担当하였었다.

저녁 8時 15分, 4時間이나 豫定보다 늦어서 熱帶의 뜨거운 김이 남아 있는 밤의 이 마니라空港에 到着하였다. 이 空港은 數年前 密輸業者가 事件의 證據物을 없애기 위해서 放火하여 完燒된 것을 最近에 再建한 것이다. 이 飛行場에 筆者의 Sydney 大學同窓이며, 現在는 필리핀 大統領 直屬下에서 300名의 地域計劃 및 都市計劃家와 建築家 및 各分野의 技術者 등으로 構成된 The Task Force on Human Settlements의 實務責任者로 있는 Jose Valdecanas 教授의 祕書嬢이 기다리고 있었다. 무려 4時間이나 기다렸더니 고맙기도 하지만 이것이야 말로 Asian Patience이구나 하고 感嘆도 하였다. 東南亞都市의 밤은 熱氣를 더운다. 더운 날씨가 낮에는 집에 있던 사람들이 活動을 始作하기 때문이다. 마니라灣을 따라서 20世紀 初期의 美國人의 都市計劃家에 依해서 計劃된 海邊公園 道路 Roxas Boulevard는 언제나 異國人的 鄉愁

을 자아내게 한다.

現在의 Manila 首都圈의 都市計劃은 1898년부터 1945년까지의 美國의 統治時代에 그 骨格構造가 形成된 것이다. Catholic의 宗教的 建築과 城廓의 Spain 植民都市였던 마니라에, 當時의 美國國務省은 都市計劃家 Burnham氏와 Pierce Anderson氏를 1905년에 派遣하여 調査 研究시켜 現在 Manila 道路網의 骨格인 所謂 Burnham 計劃을 세웠던 것이다. 이 마니라를 爲한 Burnham 計劃의 骨子는 海邊가를 따라 前述한 Roxas Boulevard가 있고, 水路를 開發하면서, 三角形爲主의 主街路網이었던 것이다. 아직 馬車가 主 交通機關이었던 當時로서는 水路와 三角形街路網은 理想的이었으리라고 생각된다.

毎年 와 보는 마니라이지만, 올 때마다 거리가 整理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8年前 筆者가 처음 와 보았던 마니라와 지금의 마니라와는 隔世之感이 있다. 아마 外國人에게도 우리 서울市의 變化도 그 以上の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 해 보기도 한다. 會議場所인 Inter continental Hotel 에는 房이 없어 Bayview Hotel에다 房을 잡으니 어느새 Jose Valdecanas 教授와 역시 Sydney 大學의 同窓인 말레이지아의 建築家 Chin君이 나타나 臨時 同窓會가 열린다. 先發하여 日本, 台灣 等地를 들러서 오신 朱源代表, 崔鍾聲社長, 그리고 郭厚燮局長에게 電話로서 到着人事를 드리고, 旧友들과 밤새 時間을 아끼며 學窓 時節의 이야기들을 한다. 18日 午前은 代表團 一行이 Marcos 大統領을 Malacanang 宮殿, Maharlia Hall로 禮訪을 했다. 여기서 Marcos 大統領은 演說을 통하여 이 EAROPH 第五次 總會가 마니라에서 開催된 것을 記念하며 Philippines 政府는 環境과 國民生活을 爲한 特別機構의 樹立 및 強力한 支援을 約束하여 全代表團에게서 뜨거운 支援을 받았다.

主題發表에 이어서 있는 各 分科委員會에서의 討論, 그 후 討論結果에 對한 決議發表 등 어느 會議사와 같은 바쁜 時間이 지나간다. 점심과 저녁에는 招待하고 招待 當하며 서로의 友情을 깊이 하는 따뜻한 時間들……,

몇일 안되는 마니라의 滞在 時間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 간다. 19日에는 韓國代表로서 筆者의 發表도 끝났고 해서 20日 하루는 마니라見學으로 會議場에서 빠져 나왔다.

午前中에는 約束한 대로 필리핀 大學校의 環境大學院에서 特講을 하고 教授들과 食事を 같이 했다.

필리핀 大學校의 Institute planning (環境大學院)은 東南亞에서는 처음 생긴 環境과 都市 및 地域 計劃을 위하여 設立된 10年 以上の 歷史를 가지고, 獨立된 建物과 圖書室을 가진 特殊大學院이다. 10余名의 教授는 全員 政府支援으로 海外에서 工夫했으며, 特히 學長인 Valoria 博士는 그 著書로서 世界的으로 알려져 있다. 이 大學院의 卒業生들이 公務員으로써 지금은 全國에서 地域計劃과 都市計劃의 일꾼으로서 크게 活動하고 있다. 午後에는 마니라에 올때마다 時間이 없어 보지 못했던 Culture

Center를 見學했다. Roxas Boulevard 海邊 가까이에 位置한 Culture Center는 마르코스 大統領夫人 主導 下에 Philippine 文化中興을 위하여 建設된 大建物로서, 大音樂堂과 民族博物館으로 内部가 構成되고, 周圍에 其他 文化施設이 配置될 豫定이나, 現在까지는 前述한 大音樂堂과 民族博物館의 main building만 完成되었다. 이 main building은 完全無窓의 雄壯, 單純하고 大膽한 Symbolic 한 彫刻的 形態로서 印象的인 建物이다. 經濟性은 거의 無視한 듯, Egypt Pyramid를 連想시키는 이 나라에 있어서의 建築家의 位置를 象徵하는것 같기도 하였다. 外國손님을 爲한 案内嬢의 說明도 必要없이 이 建物이 주는 外型的 무게는 필리핀 國民의 意志를, 그리고 内部의 構成의 次元 넓은 調和는 國民의 調和와 幸福을 象徵하는 것만 같다. 限 없이 이 建物を 鑑賞하고 나오니 熱帶의 夕陽은 마니라 灣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21日 會議終結을 하루 앞두고 다음 總會(印度 New Delhi로 豫定)에서의 再會를 約束하며 崔鍾聲造景公社 社長과 筆者는 다음의 旅行 目的地인 濠洲로 Qantas 便으로 마니라를 떠났다.

公 告

會員諸位

올해는 本協會가 創立된지 10周年이 되는 해입니다.

本協會에서는 創立10周年을 紀念하기 위한 行事의 一環으로 全國 建築士 會員들의 作品과 建築關係 論文을 널리 公募하고 있습니다.

特히 이번에 出品된 會員作品들은 「建築士」誌의 掲載 및 展示、그리고 「會員作品集」도 出刊할 計劃이오니 會員 여러분들의 積極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마감 9月30日로 박두!)

大韓建築士協會
月刊 建築士